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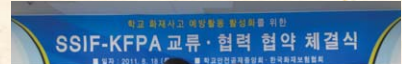
KFPA-SSIF, 학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

KFPA와 SSIF(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8월 18일(목) KFPA 여의도 본사에서 『학교 화재사고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73년에 설립된 법정 방재전문기관이며, SSIF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법정 학교안전 예방기관이다.

“화재 없는 학교 만들기”는 KFPA와 SSIF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바와 부합되는 목표로, 양 기관은 화재 없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학업에 충실하고 선생님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화재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이번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다.

KFPA 고영선 이사장은 “화재의 절반 가량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며 “화재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화재안전문화가 정착된다면 화재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금 전달

KFPA는 폭우로 인한 수재 등 재난현장과 화재현장 등에서 국가 방재업무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6일(금) 전 임직원이 함께 모은 지원금 1,000만원을 소방방재청을 통해 대한소방공제회에 전달하였다.

이번 지원은 폭우로 인한 수재 등 재난현장과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봉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공무원 가족의 생활비 및 장학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영선 이사장은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이 지원금이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FPA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38년간 우수 소방공무원을 표창하는 소방안전봉사상 행사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작년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공무원을 위한 생활 및 장학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